

高麗의 建國과 鎭州 豪族

- 鎭州 林氏의 역할을 중심으로 -1)

申 虎 澈*

— 목 차 —

- I. 머리말
- II. 高麗 建國直後의 人事와 鎭州 林氏
 - 1) 人事단행의 내용과 의미
 - 2) 人事내용에 보이는 鎭州 林氏
- III. 鎭州 林氏 族團의 세력형성과 그 向背
 - 1) 鎭州 林氏 族團의 세력형성 과정
 - 2) 鎭州 林氏 族團의 세력변화
- IV. 맺음말

I. 머리말

王建이 고려를 건국, 태조로 즉위한지 6일 만에 중앙의 각 官部의 관리들에 대한 人事를 단행하였다. 이 때 단행된 인사 내용에는 중요 관부의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직자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때 임명된 관리들 중에 군사적인 임무를 띤 관부 등 아주 중요한 부서의 장·차관을 비롯하여 다수의 관직을 鎭州(지금의 忠北 鎭川郡) 지역의 호족이 맡고 있었고 그것도 鎭州 林氏라는 하나의 族團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후삼국시대와 같이 한창 전투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있어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鎭州의 호족세력의 동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독립된 연구가 없다.

이 연구는 바로 왕건의 즉위 직후에 임명된 鎭州(임씨)출신 인물들을 통해 고려초기 진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1) 이 논문은 지난 1987년 11월 14일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97년도 정기 학술회의”(『中原地域의 姓氏와 族團』)에서 발표한 「高麗의 建國과 鎭州 林氏의 役割」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의 호족인 임씨 족단의 활동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건국 직후에 단행한 인사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 인사 내용에 보이는 진주 임씨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 이들이 임명된 배경과 그 이유를 고찰하고 아울러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후 귀족사회의 확립과정에서 진주 임씨 족단의 세력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등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진주 임씨 족단의 세력 형성과 그 성격 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라말 고려초의 새로운 사회세력인 지방 호족들의 성장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高麗建國 直後의 人事와 鎭州 林氏

1) 人事단행의 내용과 의미

왕건은 궁예의 휘하에 있다가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궁예왕을 제거하고 고려의 태조로 즉위하였다. 그리고 즉위한지 6일만인 태조 원년 6월 辛酉에 중요 관부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 때 단행된 인사에는 10명의 장관(令)과 14명의 차관(卿) 등 중앙 정치기구의 관직자, 총 31명의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이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드디어 韓粲 金行濤를 廣評侍中으로 삼고, 韓粲 黔剛을 內奉令으로 삼고, 韓粲 林明弼을 尙軍部令으로 삼고, 波珍粲 林曦를 兵部令으로 삼고, 蘇判 陳原을 倉部令으로 삼고, 韓粲 閻萇을 義刑臺令으로 삼고, 韓粲 歸評을 都航司令으로 삼고, 韓粲 孫迥을 物藏省令으로 삼고, 蘇判 秦勁을 內泉部令으로 삼고, 波珍粲 秦靖을 珍閣省令으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가 품성이 단정하고 일을 처리함이 공평하고 진실하며 創業의 시초부터 두루 종사하였으니, 모두 佐命의 功勳을 다한 사람들이었다. 關粲 林積瓚를 廣評侍郎으로 삼고, 前守尙軍部卿 能駿과 創部卿 權寔을 內奉卿으로 삼고(中略) 이들은 다 일찍부터 事務에 숙달하고 清廉謹愼하여, 가히 奉公함에 게으름이 없고 결단함에 민첩하여 진실로 못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前廣評郎中 康允珩을 內奉監으로 삼고(下略) (『高麗史』 1, 세가 1, 태조 원년 6월 辛酉)

위의 사료 가)의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태조 즉위 직후의 인사내용

순 위	官 部	(侍中·令)· 姓名	(侍郎·卿)· 姓名	(郎中 外)· 姓名
1	廣評省	侍中 金行濤①	*侍郎 林積瓚⑪	郎中 申一25 *郎中 林寔26 員外郎 國鉉27
2	內奉省	令 黔 剛②	卿 能駿⑫ 卿 權寔⑬	監 康允珩28 理決 倪言29 評察 曲矜會30
3	徇軍部	*令 林明彌③		郎中 柳吉權31
4	兵 部	*令 林曦④	卿 金堉⑭ 卿 英俊⑮	
5	倉 部	令 陳原⑤	卿 崔汶16 卿 堅術17	
6	義刑臺	令 閻蓂⑥		
7	都航司	令 歸評⑦	*卿 林湘煖18	
8	物藏省	令 孫迥⑧	卿 姚仁暉19 卿 香南20	
9	內泉部	令 秦勁⑨		
10	珍閣省	令 秦靖⑩		
11	白書省		卿 朴仁遠21 卿 金言規22	
12	內 軍		卿 能惠23 卿 曦彌24	

위의 <표 1>에서 주요 관부는 12개 부서로서 그 순위는 관부의 서열을 의미하고 人名 뒤에 표기한 숫자 역시 그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순위 1위 부터 4위까지의 4개 관부가 가장 중요한 관부였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관부는 위의 4개 관부를 보완하거나 뒷받침하는 기구였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순위 1, 2위인 광평성과 내봉성은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고, 3, 4위인 순군부와 병부는 군사적인 성격의 것이다. 즉 4개의 관부는 사실상 文· 武로 나누어 각각 두개씩의 관부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평성은 가장 중요한 관부로 그 장관인 시중은 총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라의 화백회의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자, 후일의 중서문하성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유력한 호족들의 出仕 자리로 호족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관부라 할 수 있다. 한편 내봉성은 왕명을 받들어 행정을 실시하는 관부로, 신라의 執事省의 전통을 이어 내려 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후일의 尙書都省으로 변화하였으리라고 여겨진다.²⁾

다음 군사적인 성격의 순군부와 병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본래 군사문제를 담당하던 관부로는 신라 이래 兵部가 있었으나, 궁예정권 부터 병부 외에 徇軍部를 새로이 설치하였다. 왜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부를 둘씩 두었는지, 또 순군부와 병부의 기능이나 성격 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異論들이 있어, 여기에서 갑자기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신설된 순군부는 병부보다도 오히려 중요시 되었다. 그것은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그 순위가 순군부는 3위, 병부는 4위였던 것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兵部는 신라 이래 일반적인 군사업무를 총괄하는, 즉 軍政과 軍수를 담당하는 관부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궁예의 태봉에서는 軍수는 순군부에서, 軍政은 병부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태봉에서 순군부를 새로 설치한 목적은 병부로부터 軍수權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군령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독립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는 또 궁예왕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호족연합적인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궁예의 군사권을 강화하는 것은 곧 왕권강화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순군부의 설치는 병부가 군사적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는 왕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군부와 병부는 각기 文的인 성격의 광평성과 내봉성에 대응할 수 있는 武的인 관부로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³⁾

왕건이 태조로 즉위한 직후 6일만에 내린 인사단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왕건 친위세력의 포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려 건국 직후에

2) 고려 건국 초기 정치기구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적인 연구가 여러편 발표된 바 있으며, 다음의 논문이 특히 참고된다.

邊太燮, 「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 『歷史學報』 47, 1970: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_____, 「高麗初期의 政治制度」, 『韓祐勳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1

李太鎭, 「高麗宰府의 成立」, 『歷史學報』 56, 1972

李基白, 「貴族의 政治機構의 成立」,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75

趙仁成, 「弓裔政權의 中央政治組織」, 『白山學報』 33, 1986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 건국초기 각 官府의 기능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으며, 또 본고에서 추구하는 것이 통치기구를 專論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3) 순군부와 병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李基白, 「高麗 京軍考」 (『李丙燾華甲紀念論叢』, 1956 ;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1968).

河炫綱, 「高麗政治機構의 一側面」 (『史學會誌』 6, 1967).

邊太燮, 「高麗初期의 政治制度」 (『韓祐勳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1).

鄭景鉉, 「高麗太祖代의 徇軍部에 대하여」 (『韓國學報』 48, 1987).

趙仁成, 『太封의 弓裔政權研究』 (西江大博士學位論文, 1990).

는 궁예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였기 때문에, 하루빨리 親弓裔系 관료들을 제거하고 대신 자신의 측근 인물들을 중요 관부에 임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새롭게 임명된 고위 관료들은 궁예정권하에서 부터 왕건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던 인물들이었을 것이며, 이들의 성격을 파악해 보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인사 내용에 보이는 鎭州 林氏

위의 <표 1>에 보이는 31명의 관료들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서열 3위인 徇軍部令에 임명된 韓榮 林明弼과 서열 4위인 兵部令에 임명된 波珍榮 林曦, 서열 11위인 廣評侍郎에 임명된 關榮 林積璵, 20위인 都航司卿에 임명된 林湘煖, 그리고 27위인 廣評郎中에 임명된 林寔 등이다. 이들은 각각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선 순군부령에 임명된 임명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임명필에 대해서는 이 기록 이외에는 다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가 어디 출신인지 또 왕건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다음의 사료를 참고하면 아주 흥미롭다.

나) 肅穆夫人은 역사에 그 姓氏를 잃었다. 鎭州人 大匡 名必의 딸로 元寧太子를 낳았다. (『高麗史』 88, 后妃傳 1)

나)의 사료에 의하면 大匡 名必은 비록 그의 姓氏는 알 수 없지만, 그가 鎭州人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의 딸이 태조 왕건과 혼인을 맺어 肅穆夫人이 되었고, 소생으로 元寧太子를 얻었다고 하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필자는 위의 사료 가)에 보이는 徇軍部令 林明弼과, 사료 나)에 보이는 鎭州人 名必은 동일인물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왕건의 외척이 된 ‘鎭州人 名必’은 당시 鎭州 지방의 유력한 호족세력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특히 그가 最高의 官階인 大匡의 직에 있었고 태조 왕건과 혼인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명필이 진주의 호족이었음은 분명하다. 왕건이 지방의 유력한 호족세력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적인 혼인정책을 썼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⁴⁾ 왕건과 통혼할 수 있었던 鎭州人 名必은 왕건과 일찍부터 관련을 맺고 있었고 그러한 인연으로 고려 건국 직후 순군부령에 임명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초 진주 지방의 가장 강력한 호족세력으로 ‘鎭州 林氏’ 族團이 있었으므로,

4) 태조 왕건의 혼인정책에 대해서는, 河炫綱,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대하여」, (『梨大史苑』 7, 1968)와 鄭容淑, 「高麗初期 婚姻政策의 추이와 王室의 族內婚의 성립」, (『韓國學報』 37, 1984)을 참조하라.

비록 朝鮮初期의 『高麗史』 撰修者들이 역사기록을 통해 名必의 姓을 알 수 없다고는 하였지만, 그의 姓이 鎭州 林氏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이 옳은 것이라면, ‘鎭州人 名必’은 林名必이 되는 셈인데, 사료 가)에 보이는 林明弼과는 同名人이 된다.

물론 ‘明弼’과 ‘名必’이라는 漢字 표기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라말 고려초의 人名 중에 한자의 표기가 달리 기록된 경우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北原賊 梁吉과 良吉, 진보성장군 洪術과 弘述, 尙州의 豪族 阿慈盖와 阿字介, 順州의 將軍 元奉과 元逢, 載岩城 將軍 善弼과 宣必 등이 그것이다.

결국 徇軍部令 林明弼과 왕건의 妃父인 林名必은 동일인물이며,⁵⁾ 왕건은 자신의 妃父인 林名必을 즉위 직후에 새 왕조의 순군부령에 임명한 것이라고 하겠다.⁶⁾

다음 서열 4위인 兵部令에 임명된 林曦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자. 병부령에 임명된 임희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료가 보인다.

다) 義和王后 林氏는 鎭州人 大匡 曦의 딸이다. 태조 4년 12월 惠宗을 正胤으로 삼고 그妃를 삼았는데 興化君. 慶化宮夫人. 貞惠公主를 낳았다. (『高麗史』 88, 后妃傳1)

사료 다)에 보이는 바와 같이, 임희는 진주인으로 그의 딸이 2대 혜종과 혼인하여 義和王后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의화왕후는 興化君 및 慶化宮夫人과 貞惠公主를 낳았다. 그런데 왕건이 자신 뿐 아니라 태자인 혜종의 妃로 진주인을 택한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정략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다음 광평성의 차관(인사 서열 11위)인 廣評侍郎과 차관 다음 직인 廣評郎中(서열 27위)에 임명된 林積璵와 林寔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미 언급했다시피 광평성은 國事를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관부로 그 장관인 侍中은 百官의 長에 해당하며, 호족세력을 대변하는 기구였다. 일찌기 신라의 화백회의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태봉때부터 설치되었으며 고려시대의 中서문하성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유력한 호족들의 出仕 자리로 호족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관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부의 차관인 侍郎과 그 다음 직책인 郎中에 임명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유력한 호족세력이라야 가능할 것이

5) 李樹健도 이미 이 둘이 동일인물일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다. 이수건, 「高麗前期 支配勢力과 土姓」(『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984, p.186)

6) 왕건과 임명필 딸과의 혼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가는 알 수 없다. 정용숙은 태조 즉위 1-5년 사이일 것이라고 하였지만(정용숙,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사, 1985, pp.69의 <표 8>), 필자는 태조 즉위 이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라고 여겨진다. 즉 林積瓚와 林寔이 당시의 유력한 호족출신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기록은 위의 인사발령(사료 가)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태조와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건국초기에 활동했던 林氏 姓을 가진 인물들은 대부분 진주의 호족인 임씨 족단이었으므로,⁷⁾ 위의 두 사람도 임명필이나 임희 등과 같이 진주 임씨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都航司의 차관인 都航司卿에는 林相浚이 임명되었다. 도항사는 신라의 船府, 泰封의 水壇, 高麗의 水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水軍을 관장하는 관부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도항사는 순군부와 병부를 보완하는 특수한 군사적 임무를 띤 관부였을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임상난 역시 위의 가) 기사 외에는 다른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임상난 또한 진주 임씨일 것으로 추정된다.⁸⁾

이상에서 우리는, 왕건이 태조로 즉위한 직후 6일만에 단행한 인사 발령에서 군사적으로는 徇軍部和 軍部, 都航司와 같은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관부의 장·차관에 진주 임씨를 임명하였고,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호족세력의 합의기관인 광평성의 차관 및 그 다음 서열에 진주 임씨 족단의 인물들이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태조는 자신의 妃 뿐만아니라 2대 혜종의 妃로 순군부령과 병부령인 임명필과 임희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 지역 출신의 호족세력이 핵심 관부의 장·차관에 임명되었으며, 태조와 혜종의 2대에 걸쳐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⁹⁾

Ⅲ. 鎭州 林氏 族團의 세력형성과 그 向背

1) 鎭州 林氏 族團의 세력형성 과정

태조 왕건은 언제, 어떻게하여 진주 임씨 족단과 관련을 맺게 되었을까. 아울러 어떤 이유로 이들 진주 임씨에게 兵權을 전담하는 관부를 맡겼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진주지방이 갖는 군사적인, 지리적인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주는 일찌기 삼국시대부터 군사상·교통상의 요지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

7) 이수건, 위의 책(1984) p.128, p.186.

8) 물론 고려 초기의 사료에 보이는 林氏들이 모두 鎭州 林氏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출신의 임씨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국 초기 진주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임적여, 임식, 임상난 등을 진주 임씨로 추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9) 고려 전시기를 통해서 2대 이상의 왕비를 낸 가문은 慶州 金氏(4대 4명), 仁州 李氏(3대 3명), 貞州 柳氏(2대 3명) 뿐이었다.(정용숙, 위의 책(1988), p. 48 <표-6>: 여기에서 정용숙은 太祖 妃인 肅穆夫人(父; 鎭州人 名必)을 진주 임씨로 보지 않은 듯 하다. 왜냐하면 왕비를 낸 진주 임씨는 임희의 딸 1명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있던 바, 신라말 고려초기에 이르러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즉 한강유역을 지나 진주-청주-보은을 거쳐 호남의 곡창지대로 연결되는 통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진주지방은 이미 고려 건국 이전부터 왕건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궁예의 휘하에 있던 왕건이 이미 900년에 廣州. 忠州. 淸州. 槐壤(지금의 槐山郡) 등지를 정벌하러 갔을 때, 鎭州일대의 호족들은 자진해서 왕건에게 협력했던 것으로 보여진다.¹⁰⁾

진주는 본래 고구려의 今勿奴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대에 黑壤郡으로 불리었다. 그런데 신라말 고려초에 잠시 降州로 승격되었다가 곧이어 鎭州로 개명하였다고 한다.¹¹⁾ 필자는 흑양군에서 降州로 승격된 것은 바로 왕건이 궁예의 휘하에 있으면서 중부 일대를 정벌하러 갔을 때 이곳의 호족들이 자진해서 귀부해왔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일대의 호족인 진주 임씨세력들은 이때 왕건과 관련을 맺었으며, 임명필의 딸과 왕건이 혼인한 것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따라서 왕건과 진주 임씨와 통혼한 것은 건국 이전, 즉 왕건이 궁예의 휘하에 있으면서 중부 일대(廣州, 淸州, 忠州, 槐山)를 평정하던 900년 전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¹²⁾

곧이어 鎭州라고 지명을 개칭한 것 역시 임씨 족단의 세력형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18년 왕건이 궁예를 제거하고 고려를 건국한 직후 중부 일대의 호족세력들은 왕건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청주의 호족들이었다. 청주는 본래 일찍부터 궁예의 지지기반으로써 궁예가 철원에 수도를 정할 때 청주인호 1천을 옮겨 도읍을 정비하였다. 그 이후 청주의 호족세력들은 대부분 궁예정권의 핵심세력으로 활약하였었다. 따라서 왕건이 궁예를 제거하고 태조에 즉위하자 청주호족들은 이에 반발하였던 것이다. 즉위 후 3개월 후인 태조 원년 9월 徇軍吏 林春吉이 자신의 출신지인 청주세력들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나,¹³⁾ 다음 달인 원년 10월에는 淸州帥 파진찬

10) 이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史料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즉 『三國史記』 신라본기에는 國原, 靑州, 槐壤 등지의 호족이 城을 들어 궁예에게 자진 투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三國史記』 12, 新羅本紀, 효공왕 4년 10월조), 궁예열전에는 궁예가 왕건에게 명하여 忠州, 唐城, 靑州, 槐壤 등지를 쳐서 평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같은 책, 궁예전). 그러나 실제 내용은 이들 지역의 호족들이 왕건에게 귀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건은 이때 중부일대를 공략한 공으로 阿蔡으로 승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申虎澈, 「신라말 고려 초 歸附豪族의 정치적 성격」, 『忠北史學』 8, 1995, p.10 을 참조하라.

11) 『고려사』 56권, 지리지, 청주목, 진천현조.

12) 왕건과 임명필의 딸과의 혼인 과정을, 우리는 궁예의 휘하에 있던 왕건이 羅州를 정벌할 때 이곳의 호족인 羅州 吳氏(多隣君의 딸)와 혼인하게 된 과정과 비슷한 경우라고 보고자 한다.

13) 『高麗史』 世家, 태조 원년 9월, 『高麗史』 127, 桓宣吉附 林春吉傳

陳瑄·宣長 兄弟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¹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청주지방 호족들의 반발을 무마·제압하기 위하여 왕건은 즉위 직후부터 여러가지로 노력하였다. 즉위 후 3일만에 왕건은 청주인 韓粲 聰逸을 불러 궁예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軍人 尹全·愛堅 등 80여명을 풀어주도록 한 것이라든가,¹⁵⁾ 다음해 8월 청주가 順逆을 분명히하지 못하고 와언이 자주 일어나므로 태조가 친히 청주에 행차하여 위무하고 城을 쌓은 것¹⁶⁾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는 신라시대의 西原京으로 문화적 정치적인 중심지이자, 일찌기 중앙귀족이 이주하여 강력한 지방의 토착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호족세력들을 제압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태조 왕건에게는 청주와 북쪽으로 인접한 지역이면서 일찍부터 자신과 연결되어 있던 진주 호족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였던 것이다. 당시 진주의 호족들은 청주 호족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진주의 호족세력들은 왕건의 강력한 지지세력이 되어 궁예를 제거하고 고려를 건국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임명필이라든가 임휘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건국 직후 각각 순군부령과 병부령에 임명되어 군권을 장악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같은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주 임씨들의 강력한 후원세력을 배후로 하여 왕건은 진주를 청주호족들을 제압하는 군사적 거점지역으로 활용하였다. 건국 직후인 9월과 10월에 일어난 徇軍吏 林春吉·裴聰規의 반란과 淸州帥 陳瑄·宣長 兄弟의 반란사건을 평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청주 일대의 상황은 불안하였다. 즉 원년 8월에는 熊州·運州 등 10여 州縣이 배반하여 百濟에 귀부하는 등,¹⁷⁾ 청주 이남일대는 왕건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히려 후백제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청주의 지방세력들 중에는 친왕건세력들도 있었는데 淸州領軍將軍 堅金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즉위 다음 달인 원년 7월 왕건에게 찾아와 청주인들은 變詐가 심하니 일찍 대비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하여 관군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왕건은 자신의 측근인 馬軍將軍 洪儒와 庾黔弼 등을 보내 병사 1500을 거느리고 진주에 머물러 청주호족의 반란에 대비케 하였다.¹⁸⁾ 이어 얼마 후 진주의 속현이었던 道安郡(지금의 괴산군 도안면)으로부터 “청주가 몰래 백제와 더불어 통호하여 반하려 합니다”라고 보고해오자 태조는 다시 馬軍將軍 能植을 보내 병사를 거느리고 鎭撫케 하였다. 마군장군 능식이 주둔한 곳 역시 진주일 것이며, 진주 임씨의 후원을 얻었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14) 『高麗史』 世家, 太祖 원년 10월

15) 『高麗史』 世家, 태조 원년 6월 戊午條

16) 『高麗史』 世家, 태조 2년 8월

17) 『高麗史』, 世家, 태조 3년 8월

18) 『高麗史』, 世家, 태조 원년 7월, 『高麗史』, 열전, 王順式附 堅金傳

청주지방은 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¹⁹⁾

이처럼 진주지방은 청주 이남의 호족들을 진압하기 위한 고려의 남단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 이곳의 지명이 降州에서 鎭州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鎭州는 왕건이 청주세력을 ‘鎭壓’하기 위해 군대를 ‘鎭駐’시킨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본다. 이처럼 ‘降州’와 ‘鎭州’라는 지명은 고려 건국기 이곳의 호족인 임씨 족단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따라서 단순한 지명의 개칭이 아닌, 위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²⁰⁾

한편 임씨 족단은 이러한 역할로 인해 고려 건국초에 이곳의 ‘土姓’으로 分定받게 되었다. 『世宗實錄』 地理誌 (鎭川縣 土姓條)에 의하면 진주에는 林氏를 비롯한 10개의 토성이 보인다. 그 수는 일반 郡縣의 2배나 되는 것으로써, 이는 후삼국기 이곳에 강력한 재지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다시 말하면 토성의 형성 과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태조 23년 전국적인 군현의 개편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²²⁾ 결국 林氏가 진주의 토성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 임씨 족단이 이곳의 토착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증거이며, 위에서 검토한 임명필, 임희 등과 같은 인물들의 활동과 ‘土姓’ 分定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2) 진주 임씨의 세력변화

진주 임씨들은 건국 이후에도 얼마동안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9) 이 밖에도 태조 2년 정월 왕건은 도읍을 철원에서 자신의 세력근거지인 송악으로 옮긴 후, 같은 해 8월 청주가 順逆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讒言이 자주 일어나므로 친히 청주에 행차하여 위무하고 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상과 같은 고려 건국기 청주 호족 세력의 동향에 대해서는 申虎澈,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 地方勢力」(『湖西文化研究』 11, 호서문화연구소, 1992)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申虎澈, 「鎭川의 地名變遷 및 由來에 대한 史的 考察」(『常山文化』 1, 1995)을 참조.

21)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漢式 姓氏가 지배세력 사이에 널리 보급되는 것은 신라말 고려초기 호족세력의 성장과 그 때를 같이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성씨집단인 ‘土姓’은,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한 군현에 몇몇의 族團이 나뉘어 同族끼리 어울려 사는 혈연집단적 거주지로서 지방 행정조직의 말단을 이루고 있었으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방 통치조직의 재편과 함께 동족이 아닌 他姓도 서로 섞이어 사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土姓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서로는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일조각, 1984)을 참조하라.

22) ‘土姓’이라는 용어는 15세기 전반에 편찬된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 地理誌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고려초기 이래 전래되어 오던 중앙 소장의 郡縣姓氏關係資料에 기재되어 있던 성씨를 위의 지리지에서 ‘토성’이라고 지칭하여 수록한 것이라고 한다.(이수건, 위의 책(1984), 참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왕건과 임명필이 통혼한 것은 고려 건국 이전인 900년 전후의 일이고, 혜종과 임희의 딸이 혼인한 것은 태조 4년(921)의 일이다.

라-1) 惠宗의 나이 7세에 태조가 그를 (太子)로 세우고 싶어 하였으나 그의 母인 吳氏가 側微하여 세우지 못하였다. (중략) (朴)述熙가 태조의 뜻을 헤아려 알고 혜종을 세워 正胤을 삼을 것을 청하니 정윤은 곧 태자이다.(『高麗史』 92, 박술희 열전)

라-2) 太祖 4년 12월 혜종을 冊하여 正胤으로 삼고, 后로서 妃를 삼았다.(『高麗史』 1, 后妃傳)

라-1, 2)에서 보듯 왕건은 즉위 직후부터 羅州 吳氏의 소생인 武를 太子로 세우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武의 母인 莊和王后 吳氏의 가계가 ‘側微’하여 쉽지 않았다. 결국 樞城郡의 호족인 大匡 朴述熙의 도움으로 태조 4년에 겨우 태자로 책봉될 수 있었고, 아울러 이때에 鎭州의 호족이자 병부령인 임희의 딸과 혼인시켰던 것이다. 武의 나이 겨우 10살 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태조가 재위 26년만에 돌아가자 武는 2대 惠宗으로 즉위하였으므로, 임희의 딸은 혜종의 妃가 되어 義和王后에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왕건이 태자의 비로 임희의 딸을 택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주지하다시피 태자 武가 왕으로 즉위하는데 다른 호족세력들의 견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왕건은 태자 武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자 그 妃를 진주의 유력한 호족이자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병부령 임희의 딸을 택했던 것이다. 왕건은 아울러 樞城郡 출신의 호족인 朴述熙를 혜종의 후견인으로 삼아 후일 무사히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廣州의 호족으로 추정되는 王規의 후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²³⁾

그러나 혜종이 왕위에 오른 후 오히려 왕규 세력의 견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변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왕규는 자신의 외손인 廣州院君을 왕위에 추대하려다 여의치 못하자 반란을 일으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왕규는 혜종의 異腹弟인 堯(정종)와 昭(광종)를 비롯한 다른 호족들에 의해 제거되었다. 왕규의 난을 진압하는데 앞장 선 세력은 요와 소 이외에 임휘를 비롯한 진주 임씨들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혜종에게는 왕자 興化君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의화왕후의 소생으로 임희의 외손이다. 흥화군은 왕위계승 서열 1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왕규가 이를 제치고 자신의 외손인 광주

23) 혜종의 즉위과정과 이후의 정치상황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河炫綱, 「高麗惠宗代の 政變」, (『史學研究』 20, 1968).

姜喜雄,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 7, 1977).

李種旭, 「高麗初 940年代 王位繼承과 그 정치적 성격」, (『高麗光宗研究』, 일조각, 1981).

원군을 세우고자 하였으므로 임희와 알력을 벌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혜종의 사후에 왕자인 興和君이 아닌 異腹弟인 堯(정종)가 왕위에 추대되었다. 무엇 때문일까. 세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홍화군이 왕위에 오르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다음 기록을 검토해 보자.

마-1) 혜종은 2년동안 병석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興化郎君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나이가 어렸고, 또 후사를 분명하게 부탁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후사가 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定宗은 스스로 군신의 추대를 받아서 대업을 계승하였습니다.(『高麗史』 92, 열전 6, 崔承老)

사료 마-1)은 崔承老가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혜종이 死去할 때 王子로는 興化郎君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어렸고 또 後嗣를 분명하게 부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위가 異腹弟인 堯(정종)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승로의 설명에는 몇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혜종은 의화왕후 임씨의 소생인 홍화랑군 이외에 또다른 王子가 있었다.

마-2) 宮人 哀伊主는 慶州人이니 大千 連父의 딸이다. 太子인 齊와 明惠夫人을 낳았다(『高麗史』 1, 后妃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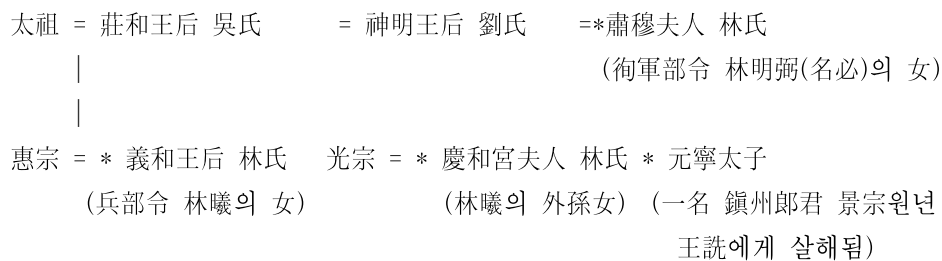
마-2)에 의하면, 혜종에게는 宮人 哀伊主의 소생인 齊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혜종과 애이주가 언제 혼인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의화왕후 이후일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홍화랑군을 제외하고 애이주의 소생인 齊를 太子라 한 것으로 보아 홍화랑군은 혜종 재위 때 이미 태자로 책봉되지도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혜종 사후 홍화랑군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고 한 마-1)의 내용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번째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것은 홍화군이 혜종 재위기에 이미 일찍 사망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애이주는 后妃가 아닌 宮人이었으므로, 혜종의 제 1妃인 의화왕후의 소생인 홍화군을 제쳐두고 애이주의 소생인 齊가 王位를 계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홍화군의 外家가 고려 건국후 順군부령과 병부령에 임명되어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진주의 대호족인 진주 임씨 족단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宮人의 소생인 齊가 太子로 책봉된 것을 보면, 홍화군이 일찍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홍화랑군이 왕위를 계승하지도 못한 세번째 가능성으로 진주 임씨 세력이 이때 권력쟁탈전에서 밀려났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당시 진주 임씨

족단의 활동과 그들의 위상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한 추정의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진주 임씨세력은 태조 이후 광종대에 까지 중앙정계에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혜종과 의화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慶和宮夫人 林氏는 광종의 妃가 되었다.²⁴⁾ 따라서 임희는 혜종의 妃父이자 광종의 妃外祖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광종과 경화궁부인과 혼인은 혜종 2년에 이루어졌다. 혜종이 자신의 딸과 광종과 혼인시킨 이유는 광종의 세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²⁵⁾ 즉 태조에 이어 혜종의 외척이기도 했던 王規가 堯(정종)와 昭(광종)를 모함하기 때문에 혜종은 이복동생인 이들을 왕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광종에게 출가시킨 것이다. 따라서 임씨 세력은 광종대에도 왕의 외척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진주 임씨와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려초기 진주 임씨와 왕실과의 통혼관계



- * 興和君 * 慶和宮夫人 * 貞惠公主
(林曦의 外孫일찍 사망한 듯)
- * 표는 鎭州 林氏系의 人物

한편 광종대에 활동한 진주 임씨로는 鎭州郎君을 들 수 있다. 진주랑군은 임명필의 딸이자 태조의 비였던 肅穆夫人의 소생인 元寧太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다음의 사료를 검토해 보자.

바-1) 光宗 말년에는 세상이 어지럽고 참소가 일어나 모든 형벌에 연루된 이는 대부분 죄

24) 光宗의 妃는 2명으로, 惠宗과 義和王后 사이에서 태어난 慶和宮夫人 林氏외에 太祖와 4妃 神靜王太后 소생인 大穆王后 皇甫氏 있는데 황보씨는 광종과 이복 남매가 되는 셈이다.

25) 『高麗史節要』 2, 혜종 2년조

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역대 勳臣·宿將들도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를 때에 미처 舊臣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겨우 40여명 뿐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後生·讒賊들이므로 진실로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天安·鎭州의 두 郎君은 본래 皇家의 후손이었으므로 光宗도 오히려 스스로 관용을 베풀어 마침내 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았는데, 경종때에 와서 (왕실의) 울타리가 되기에 충분하였는데 도리어 權臣의 해침을 당하여 지하의 冤魂이 되었으니, 宗盟에 있어서 어찌 원통하고 애석하지 않겠습니까.(『高麗史』 92, 열전 6, 최승로)

바-2) 이에 미처 王誨이 복수를 가탁하여 태조의 아들인 天安府院郎君을 교살하였다.(『高麗史』 1, 世家 景宗 원년조)

위의 사료 바-1)에서 天安·鎭州의 두 郎君이 태조의 왕자임을 알 수 있는데, 天安君은 天安府院夫人(慶州人 太守 林彦의 딸)의 소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鎭州君은 肅穆夫人(순군부령 임명필의 딸)의 소생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숙목부인의 소생으로 元寧太子가 있었으므로 진주랑군은 바로 원령태자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한편 바-2)에 의하면 이 두 왕자를 죽인 사람은 경종대의 執政인 王誨임을 알 수 있는데, 王誨은 景宗의 外家인 皇甫氏와 긴밀한 유대를 가진 호족으로 여겨진다.²⁶⁾ 왕선이 이들을 제거한 이유는 親光宗系의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즉 이들이 자신의 외가세력을 배경으로 광종대에 활약했던 인물이었기 살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²⁷⁾ 그렇다면 진주임씨 세력은 적어도 광종대까지는 왕실의 외척세력으로 활동하다 이후 패강진세력과 정권다툼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혜종대에 진주 임씨세력이 정권에서 축출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진주 임씨세력은 경종대 이후에 가서야 비로써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추론의 결과, 우리는 진주 임씨 의화왕후의 소생인 흥화군이 혜종을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이복 동생인 堯(定宗)가 君臣의 추대를 받아 정종에 오른 것은 두 번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경종대 이후 진주 임씨는 더이상 건국 초기의 영예를 계속하지 못하고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주 임씨 세력의 향배는 크게 변해갔다. 즉 진주 임씨세력은 점차 정치적 지배세력간의 정쟁으로 중앙무대에서 쇠퇴해 갔다고 보여진다. 순군부령 임명필의 외손인 元寧太子(鎭州郎君)가 죽임을 당한 것이라든가, 임희의 외손인 興和君이 태자로 책봉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6) 李泰鎮, 앞의 논문(1972), p.17

27) 한편 이와는 달리 이들이 光宗때에 不法한 행동을 지질렀기 때문에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본 견해도 있다. (최규성, 「高麗初期 官僚體制와 정치담당세력의 변천」, 『鄭在覺古稀紀念東洋史論叢』 1984, p.85).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신의 세력 근거지인 鎭州로 낙향하여 在地勢力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고려 건국기의 호족연합적인 지배체제로 부터 光宗·成宗代를 거치면서 국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체제로 변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호족세력의 권한은 점차 약화되었다. 진주 임씨세력 역시 중앙의 정치적 지위는 점차 하락되어 갔을 것이다. 성종대에 향리제도가 성립되면서 이들 재지호족들은 향리층으로 편입되었다. 중앙으로 진출한 문벌귀족과 지방에 잔존한 향리계층인 吏族들은 점차 그 신분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갔을 뿐만아니라 그들 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는 격차가 심해지게 되었다.

고려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의 貴族이나 지방의 吏族들은 그 출신이 대부분 호족으로써 그 신분적인 차별은 별로 없었다. 고려초기 호족세력이 중앙으로 진출하느냐 아니면 출신 지방에 남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 세력의 大小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예컨대 태조대의 功臣으로 문하시중의 직에 오른 善山의 호족인 金宣弓은 그 아들 중에서 長子인 文奉은 자신의 향리로 돌아와 吏族이 되는데 반해, 次子인 奉術은 侍中이 되어 중앙의 귀족이 되었다. “善山の 土族(貴族)과 吏族이 모두 宣弓의 後裔”²⁸⁾라고 한 기록이 결코 과장이 아니며, 또 “高麗初에는 鄉吏職과 중앙관료(朝官)가 通用되었다”²⁹⁾ 한 기록도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진주 임씨세력은 아마도 후자에 보다 가까웠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진주 임씨와 같이 고려 건국기에는 강력한 호족세력이었지만, 그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가문의 경우는 많이 있다. 후백제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昧谷(회인)의 호족인 龔直이라든가, 溟州(강릉)의 대호족인 王順式的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한다.

진주 임씨들은 이후 진주의 향리층으로 활동하다가 무인정권 말기 林衍이 등장하면서 잠시 族勢가 강성하여졌다. 임연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은 비교적 당대의 유력가문들과 혼인하였다. 한편 임연 이전의 집권자였던 金俊은 임연과는 달리 대부분 宦官 혹은 內僚 집안과 혼인하였다. 비록 金俊이나 임연이 각각 정치적 진출이나 집권과정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통혼권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당시 이 양자간의 출신 신분이나 당시의 사회적 지위가 달랐음을 의미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³⁰⁾

임연이 집권하면서 그의 향리인 진주는 두차례에 걸쳐 승격되었다. 한번은 戊午政變(1258: 고종 46년)으로 임연이 衛社功臣에 책봉된 것을 계기로 彰義縣으로 승격시켜 肅을

28) 『新增東國輿地勝覽』 29, 善山都護府, 人物條, 金宣弓.

29) 『椽曹龜鑑』 券1, 吏職名目解.

30) 임연은 고려초기에 활동한 임명필이나 임희의 후손으로 여겨진다. 그의 출신이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줄고, 林衍의 出身과 그 社會的地位 (신호철편, 임연·임연정권연구, 충북대출판부, 1997)가 참고된다.

두었고, 다른 한번은 戊辰政變(1268:원종 10년)으로 임연이 집권에 성공한 후 知義寧郡事로 승격시킨 것이다. 물론 임연이 몰락한 후에는 다시 鎭州로 환원되었다. 결국 진주는 고려시대에 네차례 지명이 변경되었는데 건국기의 두번은 임명필, 임희 등의 활약과 관련이 있었고, 후기의 두번은 임연의 집권과 관련이 있었으므로, 모두 진주 임씨족단의 성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수 있다.³¹⁾

IV.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 건국기의 진주 임씨세력의 형성 과정과 그 변천 과정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제 이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할까 한다.

진주 임씨는 신라말기 이래 鎭州 지방의 강력한 호족세력으로 고려 건국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그 결과 건국공신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왕실의 외척세력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또 진주 임씨는 ‘土姓’으로 分定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林明彌(名必)과 林曦가 있다. 이들은 고려 건국 직후인 태조 원년 6월에 단행된 人事에서 각각 御軍部와 兵部의 장관직(令)에 임명되었다. 후백제와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한 지역, 한 族團출신의 인물들에게 군사권을 담당하던 두 관부의 장관직을 동시에 맡긴다는 것은 매우 異例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왕실과 혼인을 맺었다. 즉 御軍部令인 林明彌의 딸은 태조의 妃인 肅穆夫人이 되어 그 소생으로 元寧太子를 얻었고, 兵部令인 林曦의 딸은 2代 惠宗의 妃인 義和王后가 되어 興化君, 慶化宮夫人, 貞惠公主를 낳았다. 그리고 임희의 外孫인 경화궁부인은 다시 광종의 妃가 되었다.

이처럼 고려초기 태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당시의 어느 호족세력못지않은 막강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진주 임씨들은, 5대 경종대 이후에는 점차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따라서 중앙의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에는 진주의 吏族(鄕吏階層)으로 변화되어 在地勢力으로서 진주지방을 지배하던 가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다가 13세기 후반에 임연이 무인정권의 마지막 집권자로 등장하였다. 그가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출신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고려시대 이곳의 地名 변경 및 행정구역의 昇降도 모두 진주 임씨세력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만 하다. 신라말 고려초기 이곳을 잠시 降州로 칭했다가 다시 鎭州로 개명한 바 있는데, 전자는 이곳의 호족세력인 진주 임씨가 왕건에게 ‘降附’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후자는 고려 건국직후 청주 호족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이곳에 鎭駐하여, 반란세력을 ‘鎭壓’한 곳 혹은 ‘鎭守’한 곳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31) 이에 대해서는, 신호철, 진천의 지명변천 및 유래에 대한 史的 考察(常山文化 1, 1995)을 참조.

고려 후기에는 이곳을 彰義縣으로 승격시켜 승을 두었다가, 다시 知義寧郡事로 승격된 바 있는데, 이것은 모두 진주 임씨인 임연의 집권과정과 관련이 있다. 결국 고려시대의 진주 지방은 임씨 족단의 성쇠에 따라 그 운명을 달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